



WWF

KOREA

2023 ANNUAL REPORT

연간보고서 2023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3,000만 명 이상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오염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인식 증진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WWF-Korea(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2014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f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간 정보

제목: WWF-Korea 연간보고서 2023

발행인: 홍윤희

발행처: WWF-Korea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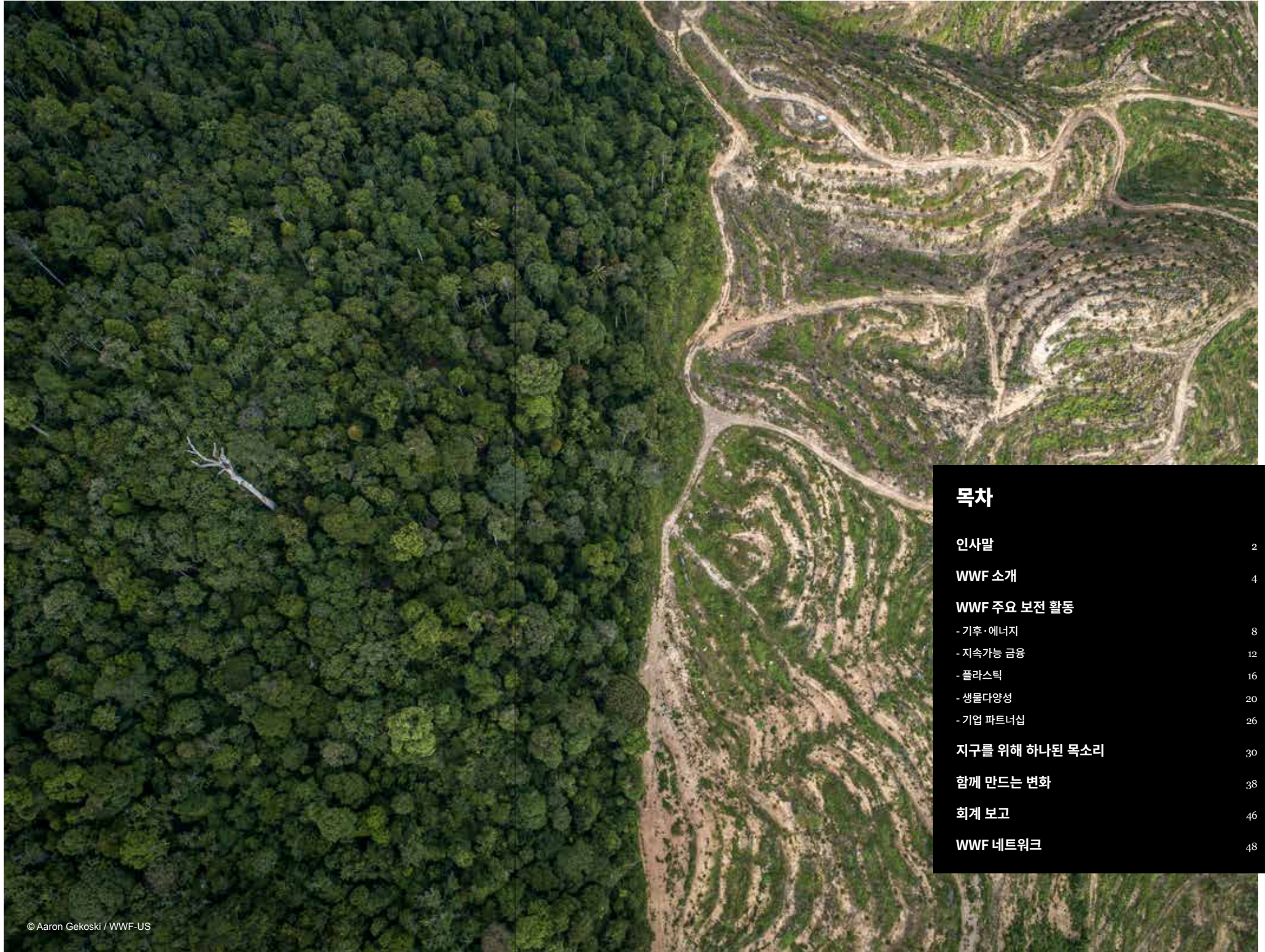
발행일: 2023년 11월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Bernard De Wetter / WWF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WWF-Korea 연간보고서 2023
© Text and graphics 2023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 Aaron Gekoski / WWF-US

목차

인사말	2
WWF 소개	4
WWF 주요 보전 활동	
- 기후·에너지	8
- 지속가능 금융	12
- 플라스틱	16
- 생물다양성	20
- 기업 파트너십	26
지구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	30
함께 만드는 변화	38
회계 보고	46
WWF 네트워크	48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마지막 기회



WWF-Korea
이사장
홍정욱

올해 한국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체감하는 가을을 겪었습니다. 116년 만에 11월 기온이 30°C를 기록했고, 다음날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극단적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비아에서는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대홍수가 발생했고, 남미와 유럽에선 기록적인 폭염, 캐나다에선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구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또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각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직면하고도 적극적인 변화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1위이며,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최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유엔환경총회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유예하는 등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변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WWF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규모의 환경 파괴가 지속되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2조 7,00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그중에서도 7번째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는 개인, 기업, 정부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미래 세대도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자연 자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단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다 과감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연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플라스틱이 더 이상 자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업과 시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WWF는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자연과 인류가 처한 위급상황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미래를 위해



WWF-Korea
사무총장
홍윤희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고 강하게 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올여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으며 9월까지 폭염이 지속됐습니다. 올해 3월 발간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는 산업화 시대 이전에 비해 1.2°C 상승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구의 온도는 이번 세기 안에 1.5°C를 넘어 2°C 이상 오를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오염을 정화하고,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자연의 역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WWF는 자연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물종 멸종을 방지하며, 생산과 소비의 생태발자국을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주요 지역의 자연 보전 활동을 비롯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협상, 각국에서의 정책, 금융 및 시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학계와 함께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고, 탈탄소 사회를 구축하고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금융의 흐름이 온실가스 감축과 자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융 기관을 평가하고 기업에 과학적 목표 수립과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등 변화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기업 다자간 공동 선언을 운영해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일조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생태계 복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양한 기관, 파트너사,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무엇보다 WWF의 활동을 지지해 주신 후원자분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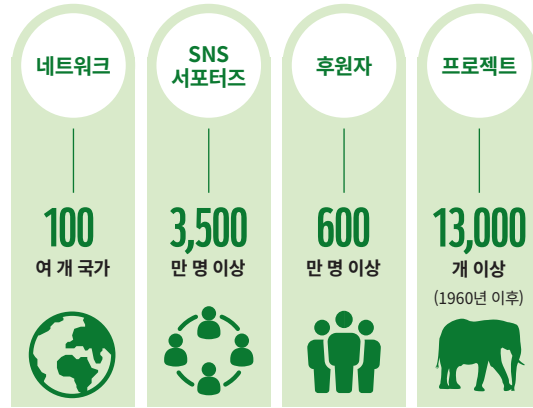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의 극복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무조건 이뤄야 하는 목표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제 더 큰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WWF-Korea와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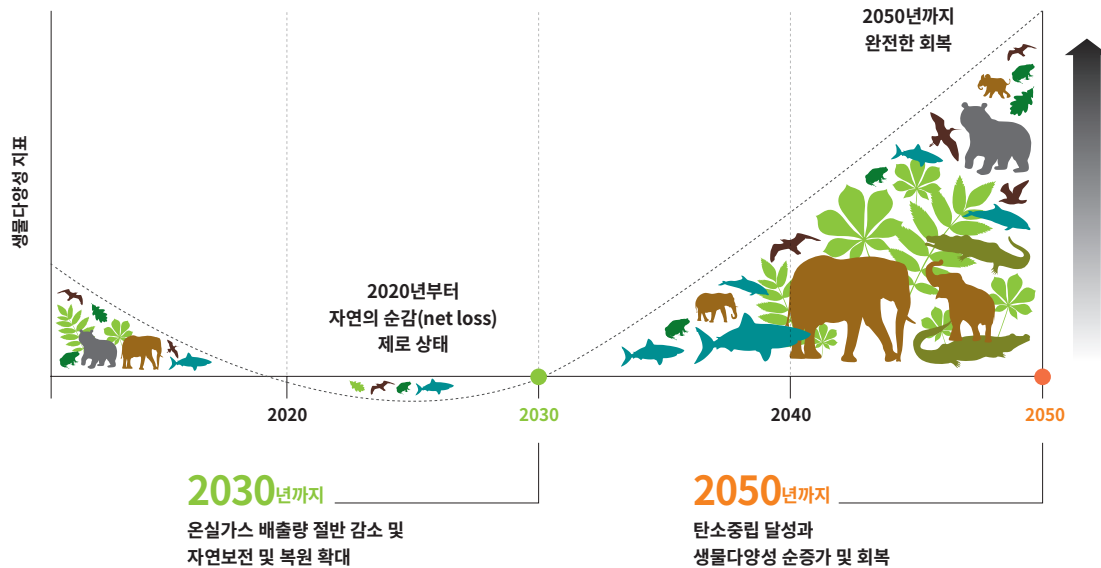
WWF의 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WWF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다. 미래로 가는 이정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연 보전 및 복원을 확대하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완전한 회복 상태를 이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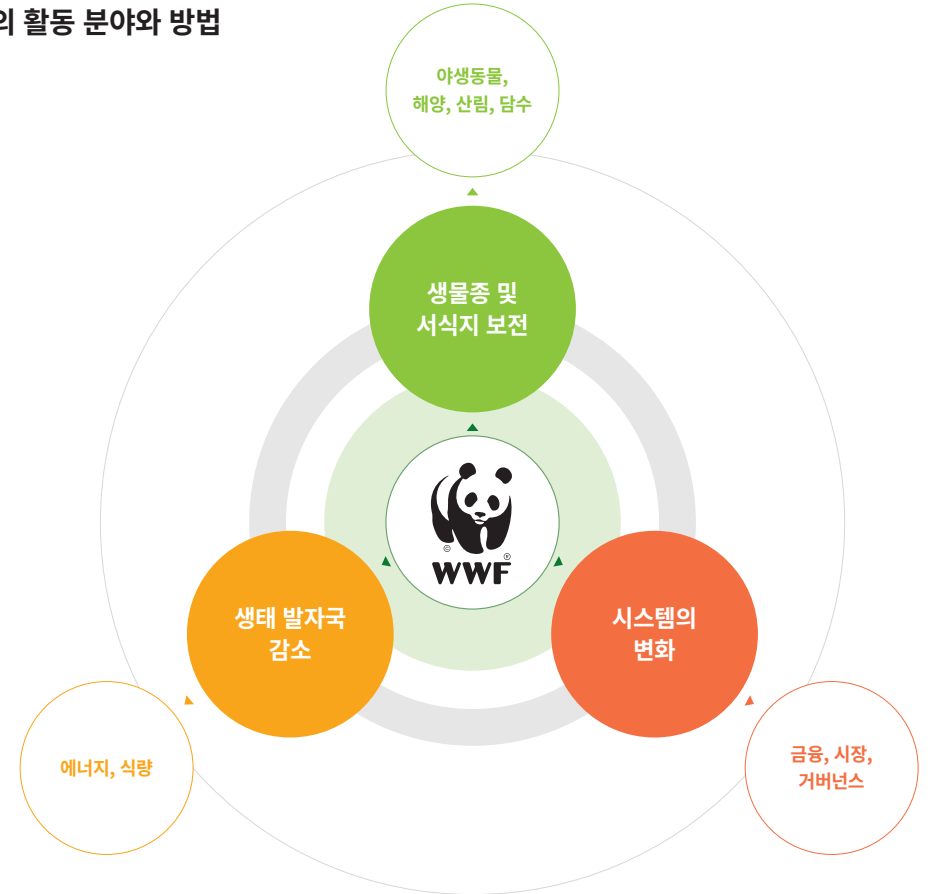
WWF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과학 기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며,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사회의 환경 어젠다를 선도하며, 정부, 기업, 금융기관, 학계, 사회 단체, 지역 사회 등 주요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WWF가 만드는 세상



WWF의 활동 분야와 방법



WWF는 야생동물, 해양, 산림, 담수, 기후·에너지, 식량 등 6개의 보전 분야와 금융, 시장, 거버넌스 등 3개의 동력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구에는 해양, 산림, 담수 등 다양한 생태계와 이곳에서 살아가는 생물종이 있다. 이들은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다. 특정 종이 멸종하거나 생태계가 훼손되면 지구 시스템의 안정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건강과 안전과도 연결된 활동이다. 따라서 자원의 유한성과 자연 회복력의 한계를 고려해 자연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인 생태발자국을 줄이고자 한다. WWF는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자연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정책, 금융의 흐름, 사업의 방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공동의 목표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시스템 변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은 필수이다.

WWF는 보전 활동을 넘어 지구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알리며 해결 방향을 제시해 왔다.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인 만큼 계속해서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WWF 주요 보전 활동 CONSERVATION IMPACTS

기후·에너지
지속가능 금융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기업 파트너십

© Jürgen Freund / WWF

기후·에너지(Climates & Energy)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

활동 배경 및 목표

목표

- 2050 탄소중립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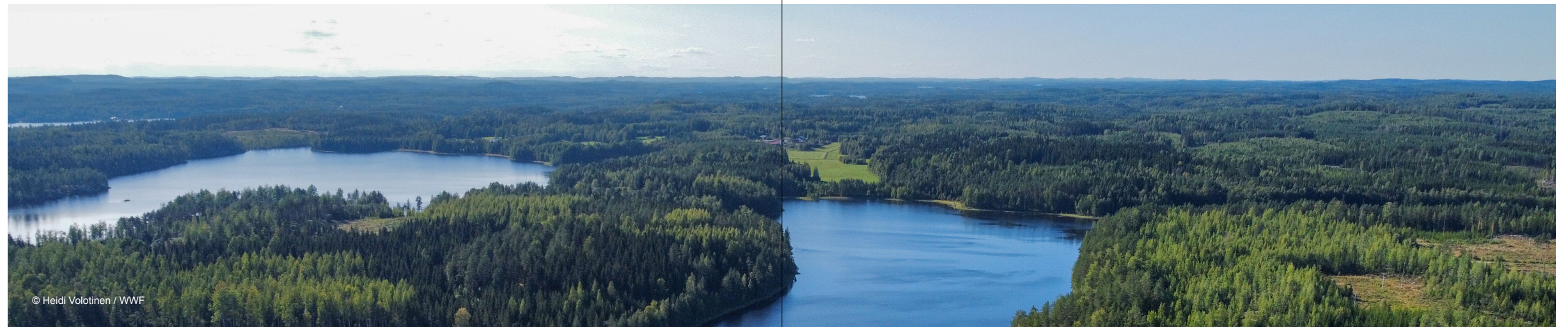
추진 방법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노력 지원
- 이중위기(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관련 인식 제고

년) 시기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최근 몇 년간 폭염, 혹한, 폭우, 가뭄 등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만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WWF는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온도 상승 제한과 이를 위한 2050 탄소중립사회 구축이라는 목표를 우리 사회가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WWF는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에너지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위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계를 비롯, 정부 및 시민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이어 나가고 있다.

지구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 이내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



© Heidi Volotinen / WWF

주요 활동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연구 진행

WWF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기후·에너지 분야의 연구 및 활동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연장선으로 동 대학원 기후연구실(정수종 교수)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꿀벌 시정 거리의 감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꿀벌군집붕괴현상(한 벌집의 일벌 집단이 갑자기 사라져 여왕벌과 봉아(새끼)가 해당 벌집을 유지하지 못해 붕괴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일벌의 1회 비행 대비 수분 매개 효율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기후연구실 연구팀은 서울과 제주에서 진행된 야외 실험을 통해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PM2.5)가 일벌의 수분 매개 효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추적 관찰하는 한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모형이 예측한 ‘2050년 전 지구 대기질 관련 결각값’을 활용해 일벌이 시계 제한(limited-visibility)을 겪는 지역의 위치와 시계 제한 일수도 지도화했다(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중국에서 일벌이 가장 많은 시계 제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온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세

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일반 대중이 환경 문제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적 내용의 꿀벌 연구 결과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자 한다.



탈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WWF는 한국 정부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 산업계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확산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비중이 높은 재생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 및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현황 분석, 해외 정책 사례소개, 국내 산업계의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탈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I: 해외 동향」, 「탈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II: 정책 제언」 등 총 2권으로 발간됐다. 국내외 재생에너지 활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관련 정책과 전력 시장의 환경 및 산업계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및 발전 비중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전달하고 있다. WWF는 본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와 지금의 재생에너지 문제를 강조하고, 관련 업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후행동 콘퍼런스 (Climate Action Conference: CAC)

2023년 3월 파리협정 1.5도 목표와 국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후행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2022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및 자연재해 이슈와 불안정한 국제 경제 등 복합적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산업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을 논의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책임자 등 다양한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이중위기에 대한 자발적 대응 방안 구축을 촉진시키는 자리가 됐다.

산업 및 사회 전반, 공공 부문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알아보고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모색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중위기(Twin Crisis -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노력」을 주제로 기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응 사례, 정책, 전략 등을 소개했다. 특히, 국내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비롯한 해외 규제 대응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됐고, 생물다양성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영향과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중위기 대응 방안 구축을 위한 실용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NDC 및 넷제로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기여했다.



기후행동 라운드테이블 (Climate Action Round-Table: CART)

2023년 1월 국내 기업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8차 기후 행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Change' 주제 하에 국내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과학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 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및 재생에너지 조달 관련 국내외 최신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서는 SBTi 참여를 넘어 과학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설정까지 완료한 SK텔레콤 및 블루버드 등의 사례 공유와 함께 최근 재생에너지를 성공적으로 조달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담당자가 관련 노하우를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기후행동 서포터즈 (Climate Action Supporters)

기후행동 서포터즈는 청년층의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4기째를 맞이했다. 전국 각지 대학 및 대학원생 21명이 참여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Youth in Action: Climate Change and Socio-Biodiversity)을 주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육, 현장답사 및 멘토링 교육 등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기후변화가 사회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북극, 동물, 곤충, 담수, 식물, 사회, 심리 등 7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최종 연구 결과물은 '기후행동 콘퍼런스 2023' 기간 중 포스터 형태로 게시해 콘퍼런스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청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해양 정화 활동

WWF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중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씨티재단 및 한국씨티은행과의 'Change Now for Tomorrow'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인천 마시안 해변에서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마시안 해변 및 쓰레기 관리 현황에 대한 교육을 듣고 서해안 갯벌을 체험하고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해안 방문객들이 투기한 생활쓰레기와 서해에서 밀려온 해양쓰레기 등을 수거하며 해양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 활동

2022년 11월에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조달 실무 매뉴얼이 담긴 「기업 재생에너지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정책의 배경과 현황, 녹색프리미엄 및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구매, PPA(전력거래계약) 등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의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중장기 수요를 추정한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추정 보고서」를 발간하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대폭 상향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2023년 3월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변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업의 기후행동'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했다.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정책 현황과 주요 장애물,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기업의 에너지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기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보고서 발간을 비롯해 포럼,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인류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구현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 중요하다.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경제가 인류 공동 목표에 부합하게 전환(Transition)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활동 배경 및 목표

목표

- WWF가 추구하는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 분야의 의미 있는 변화 유도

추진 방법

- **Greening Finance:** 금융시스템에 기후·환경 요인 통합
- **Financing Green:** 자금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환경·사회·경제 분야로 유도

경제는 기후, 토양, 공기, 물, 동식물 등 자연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하고 본연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자본은 식량, 기후 조절, 자연 재해 방지 등 귀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WWF는 자연자본의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의 지속가능 분류체계(EU Taxonomy) 개발 지원,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방법론 개발, 지속가능 해양경제금융 이니셔티브(Sustainable Blue Economy Finance Initiative)의 주요 원칙 수립 등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툴과 방법론들을 제시해 왔다. WWF-Korea는 국내 금융기관에 관련 정보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금융 활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추진 활동 및 성과

파이낸싱 그린(Financing Green)을 위한 솔루션 제공

지난 COP27,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 개도국이 화석 연료를 퇴출하고 극단적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2025년 1조 달러, 2030년에는 2조 4,000억 달러, 약 3,33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구가 끓어오르는 열대화 시대에 녹색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WWF는 녹색 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숙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U의 택소노미(Taxonomy), 그린 본드 가이드라인(Green Bond Guideline) 제정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하고, 유관 이니셔티브의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2년 처음 설치된 공적 전환 금융인 기후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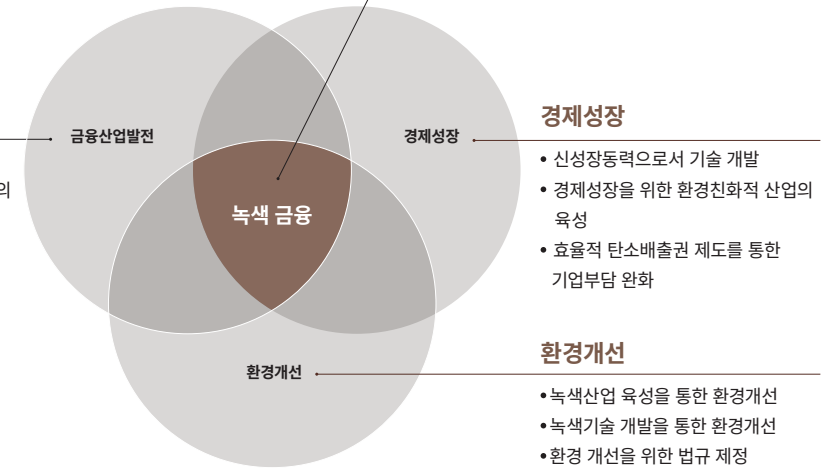
구·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의 고도화된 산업 구조와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감안하면, 전환 금융의 활발한 도입과 적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녹색 금융

- 녹색기업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
- 녹색 금융 상품의 개발 및 녹색투자자 육성
- 환경 위험을 고려한 여신 지원
- 탄소배출권 시장의 효율적 운용

금융산업발전

- 신규 금융상품 개발
- 산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의 활성화
-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효율적 운영



경제성장

- 신성장동력으로서 기술 개발
-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의 육성
- 효율적 탄소배출권 제도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환경개선

-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개선
-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개선
- 환경 개선을 위한 법규 제정
-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



© Lauren Simmonds / WWF-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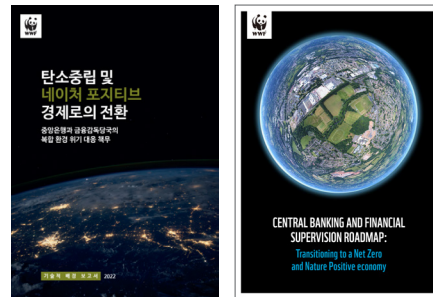
네이처 포지티브 금융정책 도입을 위한 성명 활동

세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자연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안정적인 기후와 생태환경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기록적인 이상기후와 생물다양성 파괴는 이러한 근간을 흔들며 실물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WWF는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당국이 복합환경리스크(Climate & Biodiversity)에 대한 우리들의 금융·경제시스템이 탄력성과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적 금융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한 WWF는 금융정책에 생물다양성 이슈가 고려돼야 함을 강조하며 '네이처 포지티브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으로의 전환(transitioning to a nature positive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supervis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 당국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기관의 주요 임무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WWF는 녹색 금융 규제 이니셔티브(Greening Financial Regulatory Initiative, GFRI)를 통해 금융 감독 당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GFRI는 G7, G20, COP 등 주요 정책담당자들의 모임에서 보다 강화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로드맵, 테크니컬 리포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최 일정에 맞춰 촉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과 은행들의 ESG 통합 성과 평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구현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개별 금융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금융당국의 대응력 제고와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가능금융 정책(Sustainable Financial Regulations and Central Bank Activities, SUSREG) 평가 보고서를 통해 WWF는 각국 금융당국의 기후, 환경, 사회 요인의 통합 성과를 진단하고, 상호 우수사례를 공유, 벤치마킹함으로써, 금융감독 기관이 더욱 지속가능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온라인 플랫폼, SUSREG Tracker(www.susreg.org)를 통해 SUSREG 평가 결과의 전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금융감독 기관, 재무 전문가, 연구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행 부문 지속가능금융 평가(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SUSBA)는 은행들의 경영활동에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은행의 전략과 의사 결정 절차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이른바 'ESG 통합' 성과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SUSBA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6개 아세안 국가와 한국, 일본 지역의 46개 은행을 평가 대상으로 하며, 아프리카 은행 등 평가 대상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5곳이 평가를 받았다. WWF는 자금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기후변화와 환경·사회 문제가 야기하는 리스크를 인지, 평가하도록 돕고 은행들이 지속가능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USBA의 평가 항목들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며 체크리스트다. 은행들은 SUSBA 평가 지표를 하나하나 충족하면서 ESG 요인들을 내부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처음으로 국내 주요 은행을 평가한 이후 국내 은행들의 ESG 통합 성과가 대폭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 naturepl.com / Ashley Cooper / WWF

플라스틱(Plastic)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활동 배경 및 목표

목표

- 기업의 PACT 가입을 통한 범 분야 협력 확대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추진 방법

- 플라스틱 자원순환 달성을 위한 대중 인식 제고
- 플라스틱 오염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교육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를 통한 생태계 보전

플라스틱은 지난 세기 동안 생산과 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경제성으로 인해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증해 왔다. 많은 연구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 특히 생태계 파괴나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험이 알려졌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WWF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자연 파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No Plastics in Nature(자연으로의 플라스틱 유출 제로)’ 전략을 도출하고, 기업을 비롯해 각국 정부,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는 어느 한 기업,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WWF는 그중에서도 생산자이자 해결 역량을 가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도록 노력했다. 올해는 기업들의 공동 플라스틱 감축 선언인 PACT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간 1만 1,915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하고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특히, 2024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앞두고 정부, 기업, 시민 모두의 협력이 기대된다.

추진 활동 및 성과

PACT 기업 공동 선언 활동

PACT(Plastic ACTion)는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WWF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업 공동의 다자간 선언이다. 기업들의 공동 참여를 통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디자인과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PACT는 지난 2019년 WWF-Singapore 본부에서 출범돼 예비양, 하얏트, 힐튼 등 다양한 업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고 1,2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감축을 끌어내 긍정적인 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해 왔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에 이어 2021년에는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PACT 선언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21년 4월 PACT 선언식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첫 번째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23년 6월 세 번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과 국제 플라스틱 협약 등 플라스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의 PACT 가입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 의지를 다지고 각자 설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범 분야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다. 2021년에는 그랜드 워커히, 매일유업, 산수음료, 씨에이치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울가니카, 우리카드, 우아한형제들이 가입했으며, 2022년에는 LG생활건강, 코오롱LSI·MOD, SK매직이 가입했다. 2023년에는 엑스와이지와 풀무원이 새롭게 가입했다. PACT 기업들의 연간 감축 노력을 담은 성과보고서는 2023년 하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PACT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3년 6월 9일, PACT 기업들을 초청해 '제3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먼저 환경부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동향과 함께 환경부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소개하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 2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동 목표 설정 및 규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2025년까지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는 환경부의 목표도 공유했다. WWF-US는 리소스(Resource) 플랫폼을

소개하며, 글로벌 대기업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과 적극적인 플라스틱 감축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WWF-Korea는 PACT 이니셔티브의 첫 성과와 함께 INC에 대비하기 위한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 분류 체계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주영 서울대학교 교수가 플라스틱 물질 흐름과 순환경제 전략에 대한 연구를 설명했다. 이어진 네트워킹 시간에는 PACT 가입 기업들 간 플라스틱 감축 현황을 공유하고 현재 처한 산업계의 고충을 논의했다.



제주도 침적 쓰레기 수거

WWF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인근 해역(정방포포, 쇠소깍, 성산)에서 침적 쓰레기 약 11톤을 수거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해역은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 보호를 위해 인양물 대신 전문 잠수 인력을 투입해 수거를 진행했다. 2022년 4월부터 제주도청, 서귀포시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 조사 및 수거 설계를 실시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폐어망 등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했다. 이를 통해 유령 어업과 미세플라스틱 확산을 예방하고 제주도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했다.



플라스틱 물질 흐름 시뮬레이션 연구

WWF는 자원순환 관련 정책 및 활동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이 생산, 폐기, 재활용되는 단계의 정보들을 수집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에 대한 데이터는 비공개이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글로벌 데이터를 사용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플라스틱 소재, 지역, 기간, 적용 분야별로 총 90개의 데이터를 확보해 생산과 폐기, 수집 등의 과정이 재활용에 미치는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분석했다.

연구를 통해 현재의 재활용 경향과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플라스틱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사용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PET의 경우는 수거량의 65% 정도가 생산량 및 사용 기간과 거의 무관하게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데이터의 품질 또는 누락, 다양성 부족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 플라스틱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영 주민 자율 관리 사업

WWF는 국립공원공단과 2021년부터 해양 플라스틱 수거를 목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2023년 2월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주민 자율 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의 관리 지역으로 이번 WWF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는 원거리 도서 취락지역이 많은 한려해상, 다도해 해상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사업지 중 하나인 통영 연대도의 경우 주민 인구는 약 70명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모이는 해양쓰레기는 매년 대략 20톤으로 추정되며, 주변 양식장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폐그물과 어망들도 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WWF는 이번 협력을 통해 이미 버려진 해양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인식 제고 활동을 연계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Georgina Goodwin / Shoot The Earth / WWF-UK



© naturepl.com / Alex Mustard / WWF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자연의 또 다른 이름,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손실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

활동 배경 및 목표

목표

-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고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사회를 구현

추진 방법

- 생물다양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양
- 주요 멸종위기 생물종과 서식지 보전 활동 및 지원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 전환

잡한 그물과 같은 생태계에서 상호작용하고 균형을 이루며 자연환경을 유지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깨끗한 물, 식량, 의약품 등 인간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자연 그 자체이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인간을 비롯한 자연 생태계 또한 건강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척추동물 개체군은 약 69% 감소했고, 1백만 종 이상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생명체의 주요 서식지인 담수 지역의 75%는 식량 생산을 위해 개간됐고, 해양의 66%는 어업과 오염 등의 원인으로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인류의 문화와 복지, 더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극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WWF는 주요 서식지와 생물종을 보전하고 손실의 주요 원인인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변화시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지구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동물과 식물에서부터 곰팡이, 박테리아 등 미생물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각기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지구 곳곳의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물다양성이라고 한다. 생명체들은 복



© naturepl.com / Doug Perrine / WWF

추진 활동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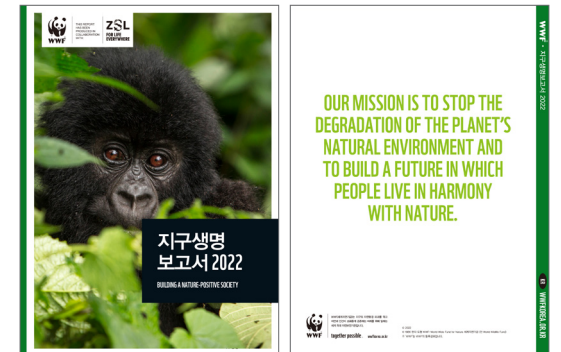
지구생명보고서 2022 발간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LPR)’는 WWF-Korea와 런던동물학회(ZSL: Zoological Society of London)와 함께 생물종들의 변화 추이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2년마다 발간하는 WWF의 대표 간행물로 2022년 10월 열네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구생명보고서는 838종의 생물종과 1만 1,011개의 개체수가 추가돼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1,821개의 개체군을 조사했다.

지구생명보고서는 전 세계 생물종 개체군의 현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 LPI)’를 제공한다. LPI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된 척추야생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의 개체군 규모가 평균 9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아마존 등 열대우림 지역의 생태계 위기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담수 생물종 개체군은 평균 83%가 감소, 전체 생물종 집단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충격적이다. 서식지 황폐화 및 감소, 과도한 자원 이용, 외래종 침입, 환경오염, 기후변화 및

질병이 개체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이중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이중위기 극복을 위해 자연보전 및 회복 노력의 확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및 소비, 모든 부문에 걸친 신속하고 철저한 탈탄소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입안자들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WWF는 지구생명보고서를 통해 자연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해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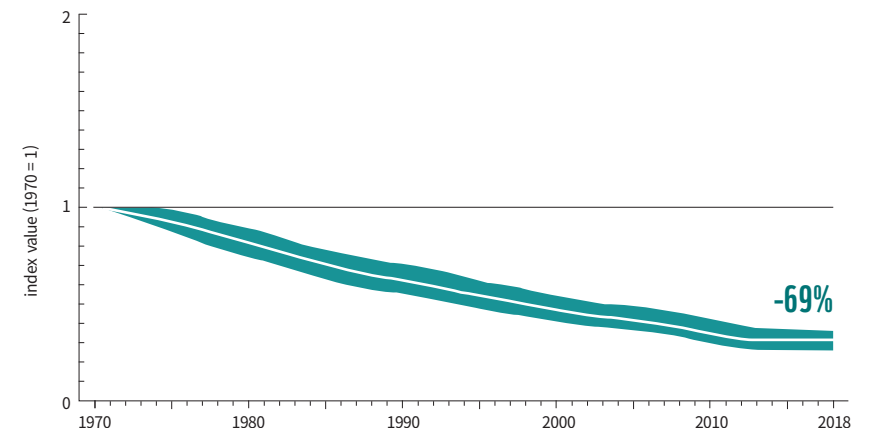
글로벌 지구생명지수 (1970~2018)

전 세계에서 관찰된 5,230종의 생물종을 대표하는 3만 1,821개 개체군의 상대적 규모가 평균 69% 감소했다. 흰색 선은 지수 값, 음영 영역은 변화 추이의 통계적 확실성(95%, 범위 63% ~ 75%)을 나타낸다.

출처: WWF/ZSL (2022)

범례

- 글로벌지구생명지수
- 신뢰 한계



지속가능한 팜유 활동

피자와 라면, 초콜릿에서부터 삼푸, 탈취제, 분유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수많은 제품에 팜유가 들어 있다. 팜유는 용도가 광범위하고 생산성이 높은 편으로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생산량이 40배 늘어 7,600만 톤이 넘었다. 하지만 팜유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되면서 산림

파괴, 멸종위기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팜유는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이점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WWF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팜유 산업을 만들기 위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① 지속가능한 팜유 워크숍 개최



WWF-Korea는 2023년 5월 지속가능한 팜유 워크숍을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팜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팜유 관련 구매, ESG 및 CSR 기업 관계자 50여 명 등이 워크숍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Roundtable for Sustainable Palm Oil, RSPO) 인증 동향 및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WWF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EU 산림 황폐화법이 통과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의 산림자원 사용의 추적성 등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이 인증받은 팜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② 사바 트립



WWF-Korea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의 현황과 RSPO 인증 팜유 농장의 사업 운영 방식을 탐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사바 트립을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팜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WWF-Malaysia와 협력해 팜유 바이어인 국내 대기업의 구매 및 ESG 관계자와 함께 RSPO 농장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SSB(Sabah Softwoods Bhd)와 SKSB(Sawit Kinabalu Sdn Bhd) 두 농장을 방문해 농장의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방식을 직접 확인했다. SSB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 묘목 심기를 통한 서식지 복원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었다. SKSB는 운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내 운반용 전기 차량을 도입했고, 팜 부산물은 사료로 재가공해 목축업에 도입하는 등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었다. RSPO 인증은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첫 단계로 WWF에서는 팜유의 지속가능성과 RSPO 인증 확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담수 및 해양 서식지 보전 활동

WWF는 파트너사 임직원들과 함께 담수와 해양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했다. 데상트와 딜로이트 임직원들과 함께 여의도 셋강생태공원을 찾아 생물다양성 교육과 함께 수달 서식지 보전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습지 조성 활동 등을 네 차

레에 걸쳐 진행해 담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해양 보전을 위해 라네즈, 데상트 임직원들과 함께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방문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 교육과 함께 진행된 3회의 해안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약 6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글로벌 생물종 보전 지원

WWF-Korea는 전 지구에서 펼쳐지는 WWF의 다양한 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생물종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지원 활동에 참여했다. 해양 생태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상어, 가오리 보전 이니셔티브 활동에 참여해 개체 수 복구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만들었다. 또한 한국을 경로로 하는 아시아 철새 보전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철새 이동 경로를 관리하고 기금을 지원했다. 한술섭유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의 삼 악어를 포함한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전개하기도 했다.

① 상어 및 가오리 보전

상어와 가오리는 약 4억 년 전부터 우리 바다에 서식해 온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종으로 탄소 저장을 도와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 따르면 1,200종의 상어와 가오리 중 37%가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일부 종의 개체 수는 남획(overfishing) 등으로 75%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에 WWF는 상어와 가오리 보전을 위한 회복 이니셔티브(Shark and Ray Recovery Initiative, SARRI)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WWF의 상어 및 가오리 보전 활동은 최소 8종의 위기(Endangered) & 위급(Critically Endangered) 상어 및 가오리 종의 개체 수를 회복하고 파급 효과를 통해 15종의 상어 및 가오리 종의 개체 수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상어 회복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혼획 완화 조치와 같은 각각의 위치와 종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만들고 있다.

WWF의 보전 노하우와 복구 툴을 제공하고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무료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일원을 해양자원 관리자로 참여시키고 복구에 따른 편익을 공동 설계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 Sanchez & Lope / WWF

② 아시아 철새 보전

한국은 두루미, 저어새,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들이 찾아오는 서식지로 EAAFP(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WW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철새 이동 경로를 이용하는 개체 수의 감소를 안정화 또는 증가 추세로 전환시키고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회복을 위해 습지를 보전하고자 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태적으로 연결된 습지 네트워크가 아태 지역 내 철새 이동 경로의 기능을 보장하도록 관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백만 명의 탐조 활동가들이 시민 과학자로서 조류 개체 수를 모니터링하고 습지 보전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멸종위기종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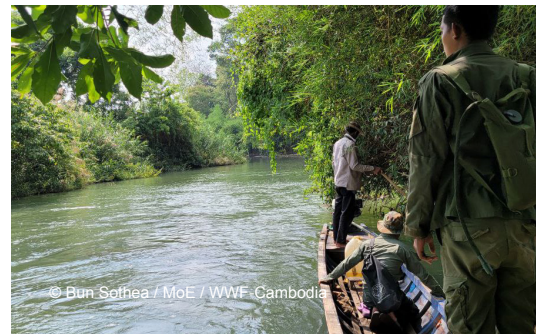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지만, 동시에 다수의 동물이 10~20년 이내에 멸종될 위기에 처해있는 위기 지역이기도 하다. WWF는 시급하게 보호, 관리가 필요한 50개 종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보전하며, 이 중 메콩강 유역, 몽골 및 태평양 지역 내 멸종위기종을 2025년까지 선별해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이후에는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WWF-Korea는 전 세계 WWF 네트워크가 함께 조성한 ‘멸종위기종 기금(Species Extinction Crisis Fund)’에 참여해 궁극적으로 ‘생물종 멸종 제로(Zero Extinction of Species)’라

는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있다. WWF는 기금을 통해 아태 지역 WWF 지부가 현지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와 수행하고 있는 현장 프로젝트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전 지역의 지역시민사회단체(CSOs) 및 수행기관의 참여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④ 삼(Siamese) 악어 보전

WWF와 한솔섬유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멸종위기종 복원과 지역 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WWF-Cambodia가 착수한 해당 사업은 세레포크(Srepok) 강의 생태계와 삼(Siamese) 악어 서식지를 보호하고 개체 수를 강화해 메콩강 유역의 자연 보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 악어 보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WWF와 한솔섬유는 앞으로도 여러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통해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Bun Sethea / MoE / WWF Cambodia



© naturepl.com / Andy Rouse / WWF

기업 파트너십(Corporate Partnership)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이루는 기업만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 배경 및 목표

목표

- 기업의 환경 영향과 생태발자국 저감을 위한 노력

추진 방법

- 기업 비즈니스 방식 변화를 통한 생산과 소비의 생태발자국 감소
- 기업 내부 교육을 통한 임직원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이해 도모
- WWF 보전 사업 지원

니스 전환 파트너십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 또는 환경 영향이 적은 산업군의 기업들을 상대로 인식 제고 및 자연보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이중위기(Twin Crisis)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공유하는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적인 주체로서 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자원과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며, WWF는 이러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적 영향을 줄여나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이 새로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기업과의 협력은 기업의 특정 관심사나 해당 산업군이 환경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맞춰 진행되며 임직원 교육이나 대중 인식 제고 등의 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비즈니스 전환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WWF의 보전 목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기업,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 자연 보전에 강한 의지를 가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해 비즈

추진 활동 및 성과

환경부 주최 대한민국 ESG 포럼 참여

WWF는 2022년 11월 환경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ESG 포럼에 참여해 ‘기후위기를 넘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상품과 유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WWF는 강연에서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비즈니스 리스크와 솔루션을 찾기 위한 기업의 역할과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개념을 함께 소개했다. 네이처 포지티브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소비 방식, 기술의 사용 및 경제·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고했다.

‘지속가능한 상품과 유통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WWF와 이마트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상품 이니셔티브(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PSI)’를 비롯해 WWF와 국내외 유통사의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유통 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의 생산과 소비, 제품 설계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주도적으로 전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 및 비즈니스 교육 진행

WWF는 파트너사인 영원무역, 카카오페이, 한진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과 비즈니스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지,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비즈니스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했으며,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공유했다. WWF는 기후와 생물다양성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중으로 벌어지는 전 지구적 비상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인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이중의 비상 상황에서 기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코카-콜라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

WWF와 코카-콜라는 물 환원 프로젝트(Water Replenishment Project)와 플라스틱 지속가능한 패키지(World Without Waste)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보전 활동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물 환원 프로젝트’는 전 세계 수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담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2023년에는 경상남도 고성과 김해에서 각각 성전 소류지와 명동 저수지 준설을 통해 지역사회 농업용수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코카-콜라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여주에서 물 환원을 위한 숲 가꾸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지하수의 수원 함량을 증대시키고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카-콜라는 ‘지속가능한 패키지’를 통해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음료 패키지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교체하고 최소 50% 이상 재생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6월 원더플(ONETHEPL) 캠페인 시즌4를 시작했다. 원더플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후 버려지는 투명 음료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을 알리므로써 투명 음료 페트병이 재활용 과정을 통해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순환경제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참여형 캠페인이다.



© Shutterstock / Song_about_summer / WWF



© Jeremiah Armstrong / WWF-Canada



지구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
HIGHLIGHT MOMENTS

지구를 위해 하나된 목소리

Highlight moments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이자 유권자로서 기업과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난 한 해 동안 WWF가 시민들과 함께 한 주요 캠페인을 소개한다.

어스아워



어스아워 하이라이트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시민들이 어스아워에 동참했으며, 어스아워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어스아워 참여를 약속한 랜드마크와 기업, 공공기관 등의 선언으로 'Hour Bank'에 총 41만 시간이 모여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세계적인 랜드마크인 브라질 예수상, 프랑스 노트르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에서도 소등에 참여했으며,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슈퍼주니어

의 최시원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유명 인사들도 지구를 위해 목소리를 더했다. 국내에서는 국회의사당, N서울타워, 서울 시청, 한강대교 등 전국 116개 이상의 공공기관, 기업, 랜드마크 등이 소등에 참여했고, 인스타그램에서 '어스아워' 게시물이 32만여 건 이상의 노출을 기록했다.

지구를 위한 한 시간, 어스아워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세계 최대 자연보전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가 진행됨에 따라 한 시간 동안 전 세계 시민들이 소등에 참여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 폭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으며 자연 파괴로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의 69%가 사라졌다. 이번 어스아워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위해 모두가 함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지금이곧때'를 주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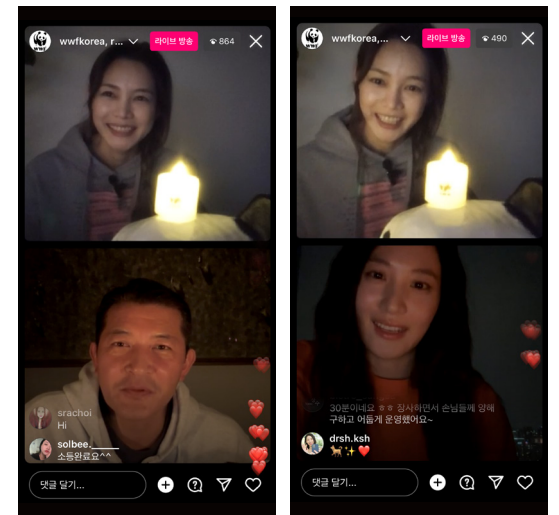
지구를 위해 '친절한' 편의점에서 '불편한' 편의점으로

WWF-Korea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점을 상징적인 장소로 선정해 어스아워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어스아워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GS25 편의점 1,000여 곳에서 간판을 5분가량 소등했고, 이마트24는 점포 내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어스아워를 홍보하고 본사와 일부 직영점이 간판을 소등해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어스아워 라이브 방송 '당신이 불 끈 사이'

어스아워 당일, WWF-Korea는 방송인 안현모의 사회와 WWF-Korea 홍정욱 이사장,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배우 수현, 웹툰 작가 구희가 함께하는 어스아워 릴레이 라이브 방송 '당신이 불 끈 사이'를 진행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국내뿐 아니라 칠레, 브라질,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약 7만 2천여 명의 시민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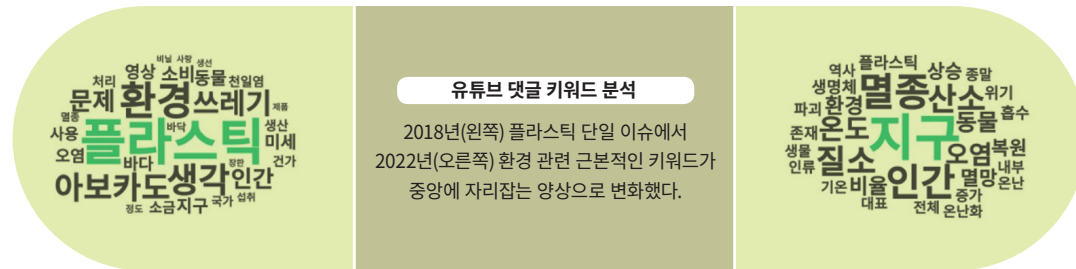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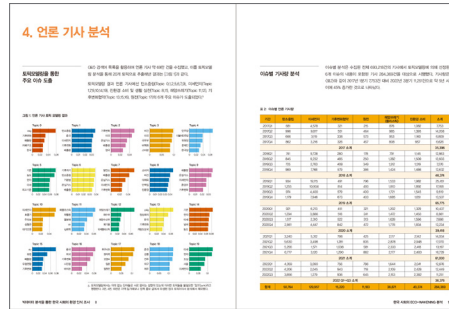


에코웨이크닝

에코웨이크닝(Eco-Wakening)은 WWF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Economist) 연구팀과의 연구 결과 확인된 사람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말하며 사용한 개념이다.

WWF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환경 인식 조사 - 한국 사회의 Eco-wakening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환경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 2018~2022년 5년간 국내 언론과 대중의 환경 관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 관련 키워드를 포함해 작성된 69만 3,218건의 언론 기사와 유튜브 댓글 39만 7,6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언론 기사 유튜브 댓글 모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유튜브 댓글 분석 결과 환경 문제에 대한 언급이 5년 새 무려 8만 건이나 증가해 환경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이슈로는 '플라스틱'이 꼽혔다. 반면, 2022년 가장 긍정적인 키워드는 '실천'이었다. 실천 관련 단어는 최근 새롭게 등장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이 지난 5년간 한국 사회의 환경 관련 인식은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또한 변화의 속도도 급격히 빨라지고 있었다. 미세먼지에서 기후위기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생물다양성으로 이어지는 인식 변화와 행동, 실천의 키워드 확대를 통해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해결책 모색과 참여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인터뷰

그린인터뷰(Greenterview)는 WWF가 환경과 자연을 주제로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기획한 영상 콘텐츠이다. WWF의 홍보대사 타일러가 다양한 게스트와 주제별로 이야기 나누는 인터뷰 형식으로 2022년 8월 시즌 1을 시작했다.

시즌 1은 '생물다양성'을 키워드로 호랑이 보전, 생물다양성, 팜유, 플라스틱 등 4가지 주제로 총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 WWF-Korea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시즌 1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알기 쉽게 소개한 김산하 박사,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이루고자 하는 트래쉬버스터즈 박재원 대표, 호랑이를 비롯한 멸종위기 동물을 그리는 고상우 작가를 소개했다. 자연보전과 환경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렵거나 지루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친숙하게 전하고자 했다.



경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행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렵거나 지루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친숙하게 전하고자 했다.

판다토크

판다토크는 2016년부터 시작한 WWF-Korea의 대표적인 강연 프로그램이다. 2022년 여섯 번째 판다토크는 '지구생명보고서 2022' 발간에 맞춰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열렸다. 판다토크는 철학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연결성을 설명한 서울대학교 최창용 교수의 강연과 야생동물 보전 중요성과 반

달가슴곰 복원 사례를 소개한 국립공원 야생동물의료센터 임승호 수의사의 이야기로 꾸며졌다. 호랑이 등 멸종위기종 동물 소개로 WWF와 특별 전시를 개최한 현대미술가 고상우 작가는 아트 퍼포먼스로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구를 읽어요 챌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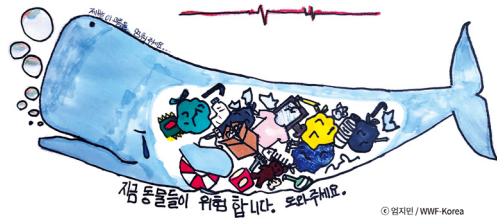
지구생명보고서 2022 발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나누는 온라인 챌린지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에 관심이 있지만, 어렵게 느껴온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책과 미션 활동을 제공했

다. 활동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며 환경 문제를 자기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지구시민으로서 작은 실천부터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나눴다.

어린이 멸종위기 동물엽서 그리기 챌린지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를 살아가야 하는 어린이에게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며 체험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열린 ‘어린이 멸종위기 동물 그림엽서 그리기’ 캠페인에는 짧은 기간에도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371점의 작품이 출품돼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어린이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는 토종 돌고래인 상괘일부터 따오기, 애기뿔소뿔구리 등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동물이 담겼으며 동물을 보호하고, 이들의 서식지인 지구를 지켜달라는 어린이들의 메시지도 함께했다. 출품작 중 3점의 작품은 친환경 엽서로 제작했고 WWF의 활동과 메시지를 전하는 굿즈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물엽서 그리기 챌린지 수상작들

해양 보전 인식 제고 활동

WWF는 2022년 9월 부산 광안리 SUPrise 해변에서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보전 인식 제고를 위한 체험 부스를 진행했다. 이는 패들서프프로협회(APP, Association of Paddlesurf Professionals) 월드 투어의 한국 대회인 부산 SUP(Stand Up Paddle Board) 오픈과 함께 진행된 것으로 부스 방문객들

이 해양 동물을 괴롭히는 페그몰과 페트병, 비닐봉지 등을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하는 미션을 수행했다. 3일간 약 300여 명이 WWF 부스를 방문해 해양 동물의 입장이 돼 보는 등 해양 보전 의지를 함께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지속가능한 패션 세미나

2023년 5월에는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와 ‘패션 사업의 순환경제’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패션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는 섬유 패션 산업과 순환경제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으로 시작해 패션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에 대한 사례가 소개됐다. 패션 브랜드들은 디자인부

터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공급망에 걸쳐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고 점점 높아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논의했다. WWF는 앞으로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이어 나가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힘을 계획이다.



**함께 만드는
변화**
TOGETHER POSSIBLE

© naturepl.com / Steven Kazlowski / WWF

함께 만드는 변화 Together Possible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됨에 따라 WWF도 후원자 및 시민과의 대면 활동을 재개했다. 미래 세대에 온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한 해 동안 WWF에 보내온 응원과 바람을 담았다. 지구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갈 모습을 후원자와 이사회의 목소리를 빌려 살펴보았다.

도토리 심기 및 꿀벌 숲 조성

2023년 4월, 31명의 WWF 서포터즈와 후원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노을공원에서 도토리나무 심기 활동을 개최했다. 2002년 공원이 조성된 이후 15년간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던 난지도를 복원한 장소이며 토지 깊숙이 100m가 넘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었다 보니 기존의 자연 생태계와 다르게 양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었다. 이에 WWF와 후원 회원

들은 1월부터 씨앗을 길러 묘목으로 자란 도토리 집시등을 노을공원에 전달했다. 함께 씨드뱅크를 만들고 참나무 묘목을 심는 등 도심 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숲 보전 활동에 힘을 모았다. 이번 활동은 ‘노을공원 시민모임’과 함께했다.



꿀벌 플로깅

WWF-Korea는 2023년 5월 ‘세계 벌의 날’을 맞아 사단법인 와이퍼스와 꿀벌 숲 조성을 위한 플로깅 활동을 서울과 부산에서 총 두 차례 진행했다. 2022년 6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이어 올해는 약 3배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꿀벌이 꿀을 빨아오는 원천이 되는 ‘밀원식물’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회수하며 꿀벌숲을 거닐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 꿀벌정원에서는 약 17.8kg의 쓰레기를, 부산 동백섬 인근에서는 약 15kg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꿀벌이 건강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플로깅 런

열네 번째 지구생명보고서 발간을 맞이해 WWF는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하자라는 취지의 비대면 실천 활동 ‘플로깅런’을 진행했다. ‘플로깅런’은 스웨덴어 ‘plope(줍다)’와 ‘hiking(등산하다)’ 그리고 ‘run(달리다)’의 합성어로 마라톤 또는 하이킹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총 5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전국 각지에서 활동을 진행하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함께했다.



후원자 인터뷰 ①

KRX 푸르니 어린이집 아이들과 기린반 배수연 선생님

“선생님, 바다거북은 잘 살고 있겠죠?”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KRX 푸르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기부금을 모아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다. 기린반 배수연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물었다.

WWF에 어떻게 기부하게 됐는지 사연이 궁금하다.

ESD 교육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ESD 활동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에 환경 관련 기념일, 지역 내 행사를 교육과 연결시켜 장터를 개최하게 됐고 장터를 통해 수익금을 얻게 됐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열게 된 장터이니만큼 수익금을 환경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고자 했고 그중 아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보였던 WWF에 기부를 실천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기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처음에는 기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기부를 해야 하는 이유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물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았고 기부로 이어지게 됐다. 기부 후에는 동물 이야기가 나오면 “바다거북은 잘 살고 있겠죠?”, “판다는 대나무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지구가 오염돼 안 자라면 어떡하죠?”와 같이 이야기하는 등 동물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WWF에서 진행한 환경 교육 및 도토리 화분 심기에 대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WWF 선생님께서 숲은 다른 어떤 육상 생태계보다 많은 양의 탄소, 수분 및 에너지를 대기와 교환하면서 지구의 기후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도토리 화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도토리 화분을 세심히 보살피 주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경 교육이 있는지, 아이들과 함께 지키는 생활 실천은 무엇인지?

어린이집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을 알리고 지구가 좋아하는 물건을 파는 환경 장터를 계획했다. 버려진 커피 컵을 활용한 화분, 환경 그림이 그려진 에코백, 멸종위기 동물 그림으로 만든 키링 등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이 커가면서 안 쓰는 장난감 등 아기용품들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WWF에 기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흥미가 환경단체 놀이로 나타났고 놀이를 진행하면서 지구를 살리는 노력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했다. 이에 커다란 박스에 환경 보호 메시지를 옮겨 적고 어린이집 주변에서 박스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장터 및 캠페인 활동 이후 아이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며 어린이집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에 도움이 될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는 말을 하곤 한다. “선생님, 제가 뒤에서 교실 불 끄고 나갈게요”, “이것 좀 봐, 우리 간식 우유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제품이야” 등이 그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주고 싶나요?

모두가 공존하는 지구. 동물, 식물, 사람 모두가 공존하며 좋은 에너지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구를 물려주고 싶다.



환경 메시지를 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온 아이들

후원자 인터뷰 ②

김윤영, 김윤준 후원자 가족

“함께 노력한다면 아프지 않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 것”



WWF-Korea 창립 이래 10번째 아이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김창현·최수연 후원자. 평소 동물과 자연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후원을 시작했고 아이들에게도 이 관심이 이어졌다고 한다.

WWF에 후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 이름으로 뜻깊은 기부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기관이 있었지만 그중 유독 WWF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동물과 자연에 관심이 많았고, 아이 역시 동물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다. 처음 후원을 시작한 10년 전보다 현재 더 많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기부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아드님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아드님의 반응이 궁금하다.

환경에 대해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뿌듯하다고 한다. WWF에 기부를 하다 보니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아이도 특히 기후변화와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가정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을 위한 습관이 있는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멀티탭을 사용하고, 제대로 분리수거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외출 시 개인 물병을 챙기고,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장바구니를 지참한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 양치할 때 물컵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대나무 칫솔을 사용한다. 친환경 제품을 주로 이용하고, 유기농 방식으로 텃밭을 가꾸고 있다.

WWF가 좀 더 시급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환경 이슈가 있다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이다. 플라스틱은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주고 싶나요?

아이는 우리가 지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지구가 기뻐할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구였으면 좋겠다고 한다. 아이의 바람대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아프지 않은 지구를 물려주고 싶다. WWF와 함께 개개인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사회 인터뷰

WWF-Korea 이사 강희철 변호사

“WWF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NGO가 되길 기대하며”



WWF-Korea 창립 이래 10년째 무료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강희철 이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WWF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요?

2014년에 WWF 한국 본부가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의 형태로 설립될 때,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율촌이 공익 차원에서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당시 율촌의 공익 업무를 관장하는 공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업무 담당 파트너가 됐고, 설립 후 감사를 맡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현재 제일 시급한 환경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대기 오염 등 특정 환경 문제 자체보다는 각 환경 문제의 중대성과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낮은 점이다. 흔히 쓰는 표현으로 “뉘가 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개개인은 아닌 기업이나 국가의 문제로 치부하고,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는 규제 준수를 넘어서는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환경 투자에는 소극적이며, 국가적으로도 산업과 경제 발전에 우선 순위가 밀리는 일이 적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 소속 법무법인이나 WWF와 함께 추진하고 싶은 환경 관련 공익 활동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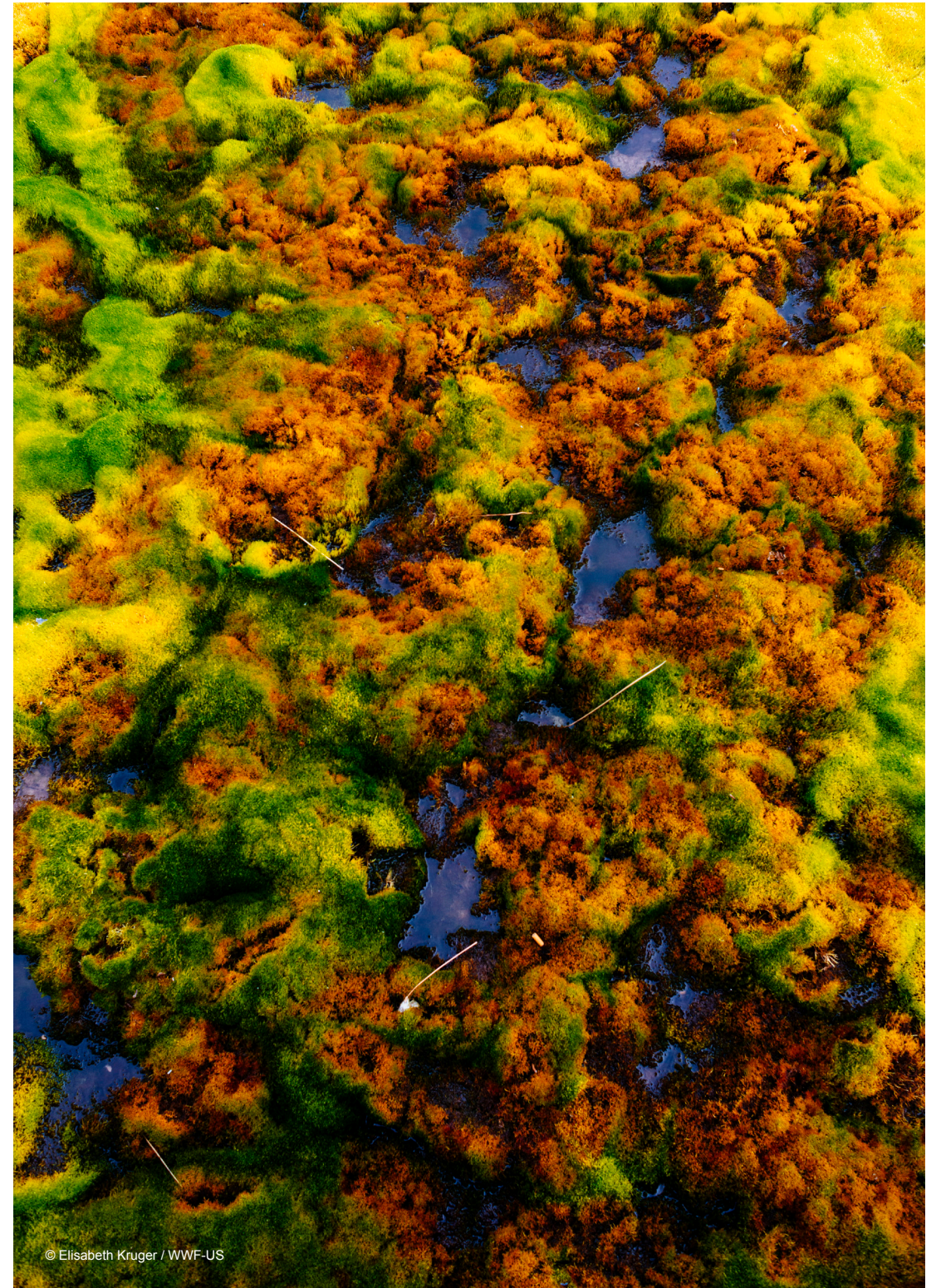
환경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지나 율촌이 가진 강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하고자 한다. 환경 관련 특정 분야를 스스로 선정해 활동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WWF와 같은 환경 분야 NGO나 환경 분야 활동가가 보다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환경 문제를 포함한 제반 법률 문제에 관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적 자문 및 검토 등의 무료 법률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환경을 위한 습관이 있다면?

일회용품 줄이기에도 신경을 쓰지만, 특히 오래 습관화된 것은 절전이다. 율촌의 제 방을 한 시간 이상 비울 때와, 퇴근이나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예컨대 사내의 회의실에 갈 때도 전등과 음향기기를 끄고 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회의실의 전등도 챙겨서 끈다. 처음에는 물자 절약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탄소 절감이라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WWF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WWF가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현안 문제의 논의와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WWF가 기존의 활동에 더해 제반 현안 환경문제들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분야를 선정 후,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해 그 분야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NGO가 되면 좋겠다.



© Elisabeth Krüger / WWF-US

회계 보고

WWF-Korea의 2023 회계연도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인 2023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후원자님의 소중한 도움과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WWF-Korea는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후원금을 사용하고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투명경영을 위한 WWF-Korea의 지속적인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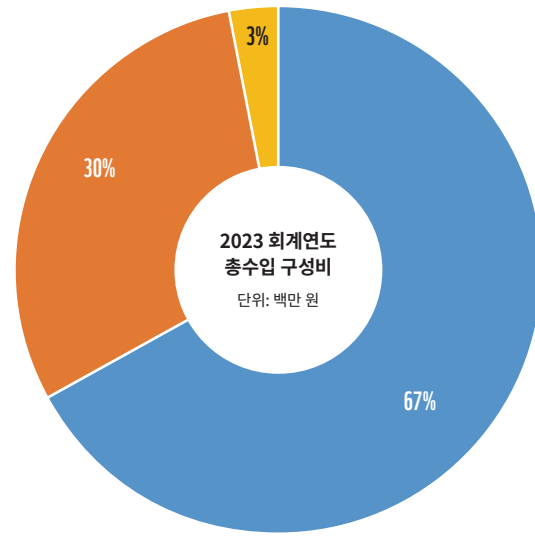
WWF-Korea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모금, 사업 운영, 후원금 관리의 과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내용과 예산을 계획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주무관청에 수입 예산을 보고한다. 예산 변경이나 예산에 따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 후원금을 사용하며, 후원 목적에 적합한 사용을 위해 회계 시스템 내에서 용도에 맞는 계정과 증빙을 검증하고 있다. 연 2회 이상 이사회에서 사업 운영 및 지출, 결산 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며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 외부 감사를 실시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연간 사업 실적, 수입, 지출 내역 및 차기 연도의 예산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결산 내역 등을 이사회와 WWF 국제본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국세청 웹사이트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수입

2023 회계연도의 총 수익은 77억 3천 9백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8% 감소한 수치이다. 총 수입의 구성은 개인 후원금이 가장 큰 비중인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후원금의 비율은 30%, WWF 네트워크 지원금, 기타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3%이다.



- 범례
- 개인후원자 후원금
 - 기업 후원금
 - 기타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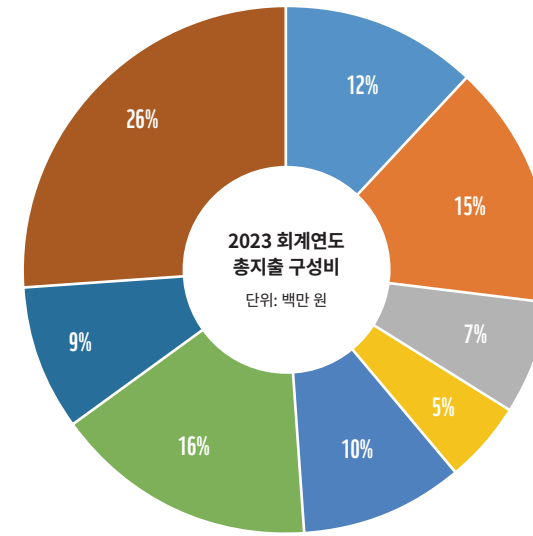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감사 시스템

외부감사	• 한미회계법인	• 연 1회 감사
정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국세청, 세무서, 점검 및 감사 • 환경부: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의 보고서 제출 •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 서류 의무 공시 • 세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공익법인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웹사이트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세계자연기금 웹사이트 공시
※ FY23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는 wwfkorea.or.kr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내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2회 이상 이사회 감사 	
WWF International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마감 후 연 1회 감사 	

지출

2023 회계연도의 총 지출은 64억 6천 8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다. 총 지출 금액의 26%가 자연보전 인식 제고 및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다. 후원자 모집 및 관리에 16%, 그리고 9%는 운영 및 관리비로 사용되었다.

총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은 플라스틱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 WWF는 2030년까지 자연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유입을 막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제주도 침적쓰레기 약 11톤 수거 및 처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기후, 금융 분야의 연구 및 인식 제고 활동, 담수의 물 순환 프로그램, 멸종위기종 보전, 어스아워 등 대중 인식 개선 및 참여 활동을 실행했으며 WWF 네트워크 일원으로서 글로벌 WWF의 주요 보전 정책 수립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WWF는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에 맞서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 범례
- 기후보전 프로그램
 - 플라스틱 프로그램
 - 일반 경비
 - 자연보전 인식제고 및 교육
 - 모금비
 - 멸종위기종보전 프로그램
 - 글로벌 환경정책 및 연구사업
 - 담수보전 프로그램

WWF의 네트워크

WWF-Korea 이사회

이사장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

이사

강희철 (법무법인 올촌 변호사)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성래은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그룹 부회장

이병욱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

정태웅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조현민 (주)한진 마케팅 총괄 겸 디지털플랫폼사업총괄/사장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대표 사장)

감사

함종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

WWF 본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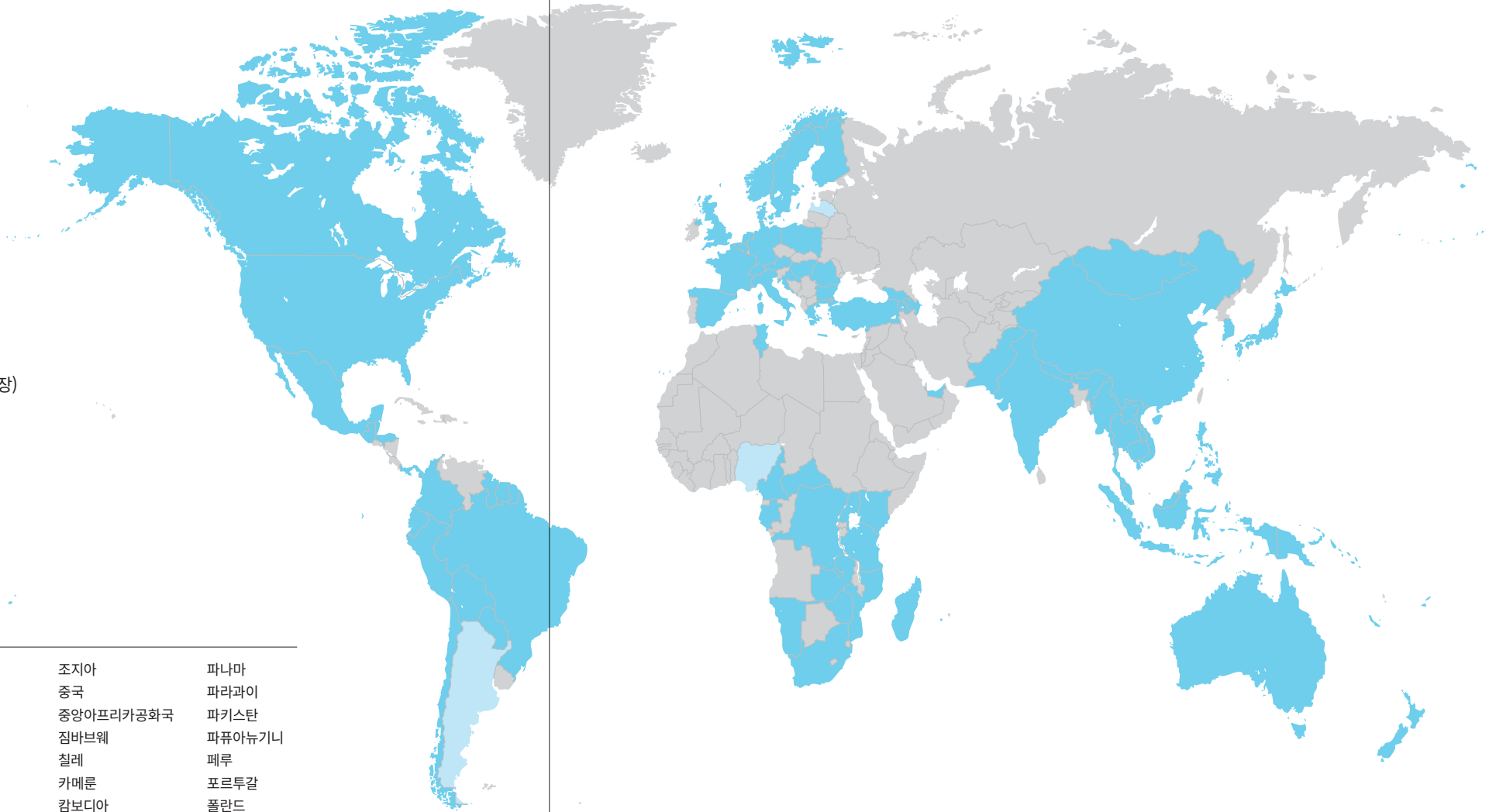
가봉	멕시코	스페인	조지아	파나마
가이아나	모로코	슬로바키아	중국	파라과이
과테말라	모잠비크	싱가포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그리스	몽골	아랍에미리트	짐바브웨	파푸아뉴기니
나미비아	미국	아르메니아	칠레	페루
남아프리카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카메룬	포르투갈
네덜란드	베트남	에콰도르	캄보디아	폴란드
네팔	벨기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벨리즈	오스트리아	캐냐	프랑스령기아나
뉴질랜드	볼리비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피지
대한민국	부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핀란드
덴마크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쿠바	필리핀
독일	브라질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라오스	솔로몬제도	인도	탄자니아	호주
루마니아	수리남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마다가스카르	스웨덴	일본	터키	
말레이시아	스위스	잠비아	튀니지	

WWF 제휴기관


Fundación Vida Silvestre
(아르헨티나)

Pasaules Dabas Fonds
(라트비아)

Nigerian Conservation Foundation
(나이지리아)



■ WWF Offices
■ WWF Associates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여정에 WWF와
함께해주세요.

© Cat Holloway / WWF



WWF는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기관입니다.

together possible. wwfkorea.or.kr

© 2023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